



보도자료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12. 05.(목) 배포 2024. 12. 05.(목) 10:00

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양양국유림관리소 보유종자 3년 연속 종자저장

- 양양국유림관리소 보유 국내 자생식물종자 200여점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저장 -

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양양국유림관리소로부터 국내 자생식물 종자 200여 점을 기증받아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저장했다고 밝혔다.

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금강초롱꽃, 눈개승마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수집한 야생식물종자 600여 점을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영구 저장한 바 있다.

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기후위기에 따라 심각해지는 산림재난에 대비해 전 세계 야생식물 종자를 안전하게 중복 저장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설립됐다.

현재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는 중앙아시아 등 190개국 수집지의 야생식물 28만여 점, 5,900여 종을 영구 저장하고 있다.

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앞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저장 가능 백만점의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은 “앞으로도 양양국유림관리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등 국가 보호지역 중심의 식물자원 보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시드볼트센터	책임자	센터장	김희진 (054-679-2789)
		담당자	주 임	김용민 (054-679-081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



1.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전경